

**19.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
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
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
도둑질하느니라**

**20.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
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
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
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**

**21.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
네 마음도 있느니라**

**22.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
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**

**23.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
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
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
더하겠느냐**

**24.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
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
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
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
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
못하느니라**

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(II)

최봉우 목사



하늘에 보물을 쌓는 복된 삶을
살기를 원한다면

**1.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
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
알아야 합니다.**

**21절 “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
네 마음도 있느니라”**

하늘에 보물을 쌓는 복된 삶을
살기를 원한다면

2.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.

22-23절 “눈은 몸의 등불이니
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
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
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
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
얼마나 더하겠느냐

**돈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
못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**

**하늘에 보물을 쌓는 복된 인생이
되려면**

3.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.

24절 “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
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
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
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
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
못하느니라

**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
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지
않으셨습니다. 하나님과 재물을
겸하여 섬길 수 없다(can not)
라고 말씀하셨습니다.**

**“우리가 돈을 다스리면 돈은
우리의 충실한 종이 될 것이다.
그러나 우리가 돈을 섬기려고
하면 돈은 곧 우리의 무서운
폭군으로 변해버릴 것이다.”
〈유대인들의 속담〉**